

< 19세기 미술의 대모험 - 시민과 미술 >

양정무 (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)

4. 반 고흐와 후기 인상주의

빈센트 반 고흐

- 자화상, 1889 (렘브란트 반 린, 자화상, 1640) (페터 파울 루벤스, 자화상, 1623)
- 자화상, 1887 (얀 반 아이크, 남자의 초상(자화상?), 1430)

1) 초기작품

- 슈케베닌겐 바다 전경, 1882 (얀 호이엔, 도르드레흐트 풍경, 1644)
- 씨 뿌리는 사람 밀레 모작, 1881 (장 프랑수아 밀레, 씨 뿌리는 사람, 1850)
- 베틀기와 직조공, 1884

- 감자 캐는 여인들, 1885
- 감자 먹는 사람들, 1885 (르낭 형제, 농부들의 식사, 1642)

2) 파리시대

- 파리의 지붕들, 1886
- 오이란, 1887 (클로드 모네, 일본의상을 입은 카미유 모네, 1875)
- 탕기 영감의 초상 1887
- 회색 펠트 모자를 쓴 자화상, 1887
- 풍차가 있는 몽마르트르 풍경, 1886/7

3) 아를시대

- 노란 집, 1888
- 아를의 침실, 1888
- 고갱의 의자, 1888
- 우편배달부 조셉 룰랭의 초상, 1888
- 아를의 포룸 광장의 카페테라스, 1888
- 해바라기 1889

4) 생레미의 생폴 정신병원

- 생레미의 생폴 정신병원, 1889
- 별이 빛나는 밤, 1889
- 사이프러스와 별이 있는 길, 1889

5) 오베르 시대

- 까마귀가 있는 밀밭, 1890
- 가세 박사의 초상, 1890년

에밀 베르나르

- 사랑의 숲 속의 마들렌, 1888
- 브르타뉴 여인들, 1888(반 고흐 모작, 1888)
(폴 고갱, 춤추는 브르타뉴 소녀들, 1888)
- 폴 고갱이 있는 자화상, 1888
폴 고갱, 자화상 "레미제라블", 1888
빈센트 반 고흐, 폴 고갱에게 바치는 자화상, 1888
폴 고갱, 설교 뒤의 환상, 1888

폴 시냐크

- 아스니에르 여름의 센강 다리, 1887
- 클리시의 봄날, 1887

폴 고갱

-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 고흐, 1888
- 안녕하세요 고갱씨, 1889 (구스타브 쿠르베, 안녕하세요 쿠르베씨, 1854)
- 황색의 그리스도, 1889
-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, 1890~91
- 자화상, 1889
- 두상 모양의 물 주전자, 1889

- 이아 오라나 마리아, 1891
- 유령이 그녀를 지켜본다, 1892 (에두아르 마네, 올랭피아, 1863)

앙리 마티스

-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자화상, 1906
- 붉은 색의 조화, 1908~09
- 빨간 작업실, 1911

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

- 해바라기와 여인의 얼굴, 1906
- 해바라기, 1909~1